

군산 근대건축기록물 현황과 디지털 아카이빙 방안 연구

김민경*

목 차

- | | |
|-----------------------------|-------------------------------|
| 1. 서론 | 1) 국내 근대건축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빙 현황과 분석 |
| 1) 연구 배경과 목적 | 2) 국외 근대건축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빙 현황과 분석 |
| 2) 선행연구 검토 | 4. 근대건축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빙 방안 |
| 3) 연구범위와 방법 | 1)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방안 |
| 2. 근대건축기록물 가치와 현황 | 2)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프로세스 |
| 1) 근대건축기록물의 형성과 의미 | 5. 결론 |
| 2) 근대건축기록물의 현황과 특징 | 참고문헌 |
| 3) 근대건축기록물의 종류와 유형 | <Abstract> |
| 3. 국내·외 근대건축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빙 현황 | |

국문초록

군산은 일제강점기에 쌀 수탈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근대건축물이 많이 남아있다. 따라서 이러한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근대건축기록물은 대한제국과 조선총독부를 거쳐 현재까지도 기록물이 생산되고 있으며 그 출처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기록물은 개인이나 단체 및 기관에서 각각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의 인식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는 통합적인 관리 방법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근대건축기록물의 인식

* 원광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기록관리학 전공, E-mail: 0502mkk@daum.net

을 높이고 기록의 통합 관리 및 효율적 활용 방안으로 근대건축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빙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화의 범주는 지역 내 근대건축물 및 그 주변의 장소를 중심으로 한다. 이것은 근대건축물 및 그 주변 장소의 경험과 집단기억이 많이 축적된 곳이기 때문이다.

둘째, 구축방식은 다양한 공동체가 참여하여 기억의 기록과 활동을 공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제공 할 수 있는 참여형 아카이브를 제안한다.

셋째, 개발도구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오메카(Omeka)’를 선택하여 기록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전시기능을 활용한다.

넷째,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프로세스에서는 수집, 분류 및 기술, 서비스로 나누어 실질적인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군산지역 근대건축기록물을 대상으로 디지털 아카이빙 방안을 모색 하였으나 국가기록원, 문화재청, 군산시의 기록물에 한정하여 현황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기록물 전반에 대한 특징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록물의 인식을 통하여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다양한 연구와 이용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수집기관과 공동체, 그리고 이용자가 협력하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록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

주제어 : 군산근대건축기록물, 근대건축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빙, 서비스, 오메카(Omeka)

1.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일제감정기에 지어진 근대건축물은 식민시기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부정적인 산물로 인식하여 철거되거나 방치되었다. 아마도 우리의 역사에서 지우고 싶은 기억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때 형성된 근대건축물은 일제의 잔재물이기도 하지만 당시의 역사, 문화, 사회, 경제, 정치 등을 인식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산물로써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시대의 아픔을 마주하기 위한 매개체이다. 무엇보다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재현되지 않도록 교훈을 주는 증거물이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도시화, 산업화 등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사라져가는 근대문화유

산을 보호하기 위해 2001년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등록문화재 제도¹⁾가 도입되고 건축자산²⁾의 보전·활용을 위해 2014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³⁾ 이러한 법률을 기반으로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근대건축물을 도시 재생과 연계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대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군산은 관광 브랜드 ‘Hello, Modern 군산시간여행 1930’s’로 차별화된 지역축제와 마케팅 전략을 통해 대표적인 근대문화도시로 성장하였다. 이 지역은 호남평야와 인접해 있어 일제강점기에 미곡 수탈을 위해 계획된 도시였으나 해방 후 급격하게 쇠퇴하고 정부의 개발정책에서 배제됨에 따라 다른 지역에 비해 근대건축물이 많이 남아있었다. 개항 100주년(1995)을 계기로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려는 여론이 형성되고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되면서 군산시는 ‘근대역사문화경관 가꾸기 기본계획(2004)’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2007)’하여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상권의 활성화와 근대건축물 보존·정비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화 사업(2008, 문화체육관광부)을 시행하였다. 수탈의 공간을 군산근대건축관(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군산근대미술관(구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 장미공연장(구 대한통운 창고), 장미갤러리, 미즈카페(미즈상사)로 활용하고 인근에 있는 구 군산세관, 진포 해양 테마공원, 군산근대역사박물관과 연계하여 근대 문화벨트지구를 구축하였다.⁴⁾ 또한 도시재생선도지역(2014, 국토교통부)으로 선정되어 근대건축자산 DB구축,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근대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였고 월명동, 영화동 일원을 건축자산 진흥구역(2017)⁵⁾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1) 문화재청, 2001, 「문화재보호법」 제2조 3항·시행규칙 제34조 등록문화재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를 제외하고 건설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역사·예술·문화·사회 등의 분야에서 상징적 가치가 있거나 기념이 되는 것, 지역의 문화와 역사적 배경이 되고 그 가치가 널리 알려진 것, 예술적 사조나 기술발전 등 그 시대를 이해하거나 반영하는데 가치를 지닌 것이다.
- 2)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건축문화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 공간 환경, 기반시설이다.
- 3) 이외에도 「문화재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지구 도입(2000), 「건축기본법」에 의한 역사적이고 우수한 도시공간에 대한 보전 의무(2008)등이 있다.
- 4) 근대산업유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지역의 문화·역사·자연적 정체성에 기반을 둔 문화적 도시재생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문화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디지털군산문화대전 <http://gunsan.grandculture.net/Contents/Index?local=gunsan>.)
- 5) 국토교통부, 2017,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한편 근대건축물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다. 문화재청은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대문화유산조사 및 목록화 사업(2004)’을 진행하였다. 1896년에서 1960년을 기준으로 군산 근대건축물 224개 소(건축물 46개 소, 멸실 건축물 178개 소)를 파악하였다.⁶⁾ 조례 제정 후 군산 근대문화역사지구 근대건축물 172개 소를 검토하여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내 근대건축물 169개 소를 조사하였다. 이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 ‘건축 자산 기초조사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최종 175개 소의 조사가 있었다.⁷⁾

위와 같이 군산은 근대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으나 근대건축물의 가치를 증명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활용 할 수 있는 근대건축기록물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근대건축기록물은 대한제국과 조선총독부를 거쳐 현재까지 기록물이 생산되고 있으며 그 출처와 형태가 다양하다. 이러한 생산과정에서 산출된 기록물은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서 각각 관리되고 있는바 기록의 인식을 높이고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는 통합적인 관리 방법이 요구된다.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또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수형태의 기록관 설립이 필요하지만 예산이나 운영기관, 인력 등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최근 기록관리가 공공영역에서 민간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적은 비용으로 소규모 아카이브 구축에 적합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에이투엠(AtoM), 오메카(Omeka), 디스페이스(DSpace) 등을 활용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⁸⁾ 특히 오메카(Omeka)는 설치와 이용이 쉽고 더블린코어(Dublin Core)를 기반으로 컬렉션과 웹 콘텐츠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이용자 참여와 상호작용이 가능하다.⁹⁾

이에 본 연구는 근대건축기록물의 인식을 높이고 여러 주체에 따라 분산 관리되고 있는 기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근대건축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빙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6) 전라북도, 2004,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및 조사보고서』
 7) 군산시, 2017,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계획(안)』, 1·35·42·63쪽
 8) 민간영역의 오픈소스 기반 디지털 아카이브는 인간과 기억 아카이브, 로컬리티 아카이브, 대한마이크로노조 아카이브, 공주학 아카이브, 인천학연구원 아카이브 등 총 17곳이 구축되어 있다. (안대진, 2019, 『기록시스템의 오픈소스 전략 연구』, 70~71쪽)
 9) 현문수 외, 2014,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실행 방안 : 부산 영도 지역 조선(造船)노동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기록학 연구』 42, 한국기록학회, 259쪽

2) 선행연구 검토

현재 군산 근대건축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빙 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나 건축기록물 관리와 도면 기술, 콘텐츠 그리고 건축 아카이브와 박물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군산의 역사적 측면과 근대건축기록물의 기록학적 측면, 건축학적 측면으로 나누어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제강점기 군산의 역사와 관련된 연구는 지리학·사회학·역사학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리학 분야에서는 1899년 개항을 계기로 근대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본 윤정숙의 연구가 있다. 시가지가 확대·변화되고 정미공업지역에서 항만·창고·금융지구로 연결되면서 미곡수출항으로서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¹⁰⁾ 사회학 분야에서는 일제시기 도시성장 과정의 특성을 파악한 김영정의 연구가 있다. 일본산 자본주의 상품이 유입되고 상업과 금융업의 중심지로 바뀌지만 해방 이후 정체하고 쇠퇴한다. 이 과정을 통해 일제의 식민지 역사가 우리나라 초기 도시 성장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설명하고 있다.¹¹⁾ 이외 일제시기 건축유산 현황과 특성을 파악한 연구와 근대문화유산 담론에 대한 연구가 있다. 송석기는 군산의 개항과 근대도시로 변화하는 전 과정을 살펴보고 1899년에서 1945년까지 근대건축의 형성과정과 근대건축물 13개 소의 건축적 특성을 파악하였다.¹²⁾ 문예은은 근대건축물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사회적 배경과 관광산업으로 확대되는 정책적 현상에 주목하였다. 이를 둘러싼 민족주의론, 역사주의론, 문화소비론이 시대적 사건과 맞물려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인식의 차가 크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¹³⁾ 이러한 역사 관련 연구들은 일제강점기 도시개발, 근대건축물의 형성과정, 건축유산의 인식 변화를 통해 당시의 상황과 시대적 흐름을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부족하였다.

기록학 분야에서의 건축기록 관련 연구는 건축기록물 관리와 기술요소 분

10) 윤정숙, 1985, 『개항장과 근대도시 형성에 관한 역사지리적 연구 : 군산항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20(2), 대한지리학회

11) 김영정, 1995, 『일제시대의 도시성장 : 군산시 사례』,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12) 송석기, 2004, 『근대도시 군산의 일제시기 건축유산 현황과 건축적 특성』, 『역사문화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역사문화학회

13) 문예은, 2011, 『근대문화유산을 둘러싼 담론의 경쟁 양상 분석 : 군산시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4(2), 역사문화학회

석, 서비스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건축기록물 관리 개선을 위해 이상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기록물 관리현황과 외국의 건축기록물 관리 사례를 살펴보고 건축기록물의 생산 및 수집체계 구축,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의 확대, 자료관 관리, 건축기록물 규정의 법제화를 제시하였다.¹⁴⁾ 이혼아는 우리나라 건설기록물 관리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선정하여 기록물 관리 국제표준 ISO 15489의 기록물 처리 과정 기능요건을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평가하였다. 제도적으로 건설기록물 분류기준표 제정, 국가기록원 이관계획 수립을 제안하였다.¹⁵⁾ 강수나의 연구는 건축문화재 기록관리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가기록원 산하 건축문화재 아카이브 구축과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다.¹⁶⁾ 그는 이외 건축문화재 기록관리 문제점으로 분산된 관리 체계를 지적하고 현실에 맞는 기록 관리 방법과 건축문화재 전문 아카이브즈 설립을 제안하였다.¹⁷⁾ 근대건축물을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해 최선영은 미국 국립공원관리청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 가운데 역사적인 건축물 조사를 분석하여 문화재청 근대건축물 기록화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법제도 규정, 지속적인 기록화, 컬렉션 구축을 제시하였다.¹⁸⁾ 영구기록물인 도면의 통합관리 필요성을 제기한 김미연은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의 도시철도 도면 보존 및 관리현황을 분석하여 서울시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철도청 등을 아우르는 전문적인 연합형 자료관 설립을 제안하였다.¹⁹⁾

도면 기술에 대한 연구로 장윤미는 건축도면 기술(Descrip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건축도면 아카이브즈 기술 표준 부재와 국가기록원 기술방식을 지적하였다. 캐나다와 영국의 기술표준과 건축도면, 건축기록에 대한 기록관리 지침을 비교·분석하여 건축도면 아카이브즈의 기술요소를 제안하였다.²⁰⁾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록원 소장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사업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ICA 건축기록에 대한 기록관리 지침을 토대로 일제강점기 건축도면

14) 이상준, 2004, 『기록물관리기관의 건축기록물관리에 관한 연구-서울시 중구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
 15) 이혼아, 2007, 『KS X ISO 15489를 통해본 건설기록물 관리현황 : K공단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7(2), 한국기록관리학회
 16) 강수나, 2007, 『건축문화재 보존관리 기록의 아카이빙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
 17) 강수나 외, 2009, 『건축문화재 기록의 특성과 관리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19, 한국기록학회
 18) 최선영, 2016, 『미국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문화재청 근대건축물 기록화와 비교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
 19) 김미연, 2004, 『도시철도 도면 관리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
 20) 장윤미, 2010, 『건축도면 아카이브즈 기술요소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의 기술영역과 기술요소를 제시한 이정용의 연구도 있다.²¹⁾

서비스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장목은 건축기록물이 역사적 활용가치가 있음에도 실질적 활용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였다. 건축기록물 콘텐츠 활용사례를 토대로 국내에 적용할 응용기술, 서비스, 교육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²²⁾ 건축아카이브 관련 해외사례를 통해 국내 기관의 운영 방식, 법규 등을 검토하고 활용방법을 모색한 조상훈의 연구도 있다.²³⁾ 주현우의 연구는 유럽연합 MACE 프로젝트와 시카고예술건축박물관 DAArch의 아카이브 수집 및 저장 방식을 분석해 국내 디지털 건축 아카이빙 도입 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²⁴⁾ 이밖에 지역 기록물에 대한 연구로 최정은은 지방 역사기록물이 역사와 문화전승에 기여함에도 인식이 부족하고 수집·관리하는 기관을 찾아보기 힘든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온라인 아카이브 OAC를 분석하여 인천광역시 역사기록물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절차와 서비스 방법을 제시하였다.²⁵⁾ 이은비는 근대기록물을 지역의 특수성과 변화과정을 담은 증거로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다. 기록을 활용하기 위해 오메카(Omeka)를 이용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온라인 전시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²⁶⁾ 이와 같이 기록학 관련 연구들은 건축기록물 기록관리의 개선방안으로 공공기록물관리법상 건축기록물에 대한 법제화, 분류기준표와 기술표준제정, 통합시스템 구축, 서비스 및 활용과 온·오프라인 상에서 아카이브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민간기록을 포함한 연구에서 근·현대사 기록물과 근대기록물을 다루었지만 본 연구에서 다룬 근대건축기록물의 범위와 종류가 상이하다. 따라서 근대건축기록물에 한정하고 공공·민간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된 직접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건축 분야에서는 건축 기록의 증거적 가치와 역사성을 강조하고 건축 아카이브와 건축박물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우종은 건축기록물의 가치와 종류를 살펴보고 대학교, 건축 관련 단체, 정부 기관 등 기능별

21) 이정용, 2018, 『기록학적 관점에서 본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체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
 22) 이장목, 2009, 『건축기록물의 활용을 위한 콘텐츠 구성방안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석사
 23) 조상훈, 2010, 『건축기록물의 아카이빙 사례 분석 연구』, 중부대학교 석사
 24) 주현우, 2012, 『디지털 건축 아카이빙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
 25) 최정은, 2010, 『지방 역사기록물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방안 :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의국어대학교 석사
 26) 이은비, 2016, 『대구 근대기록물의 온라인 전시 방안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

아카이브 사례를 통해 건축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²⁷⁾ 임창복은 건축자료전시관 관련 국내·외 자료 및 전시 활동을 조사한 결과 여러 관리 주체에 분산된 건축 관련 자료의 통합 관리와 건축박물관 건립을 제안하였다.²⁸⁾ 박찬승은 기록물관리법 내 건축기록물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다. 전문관리기관의 부재와 모형 등 중요 건축기록물의 수집·보존에 관한 사항을 지적하고 한국건축기록관 설립을 제안하였다.²⁹⁾ 지찬호는 건축 기록물의 범위를 설정하고 기록물의 종류에 따라 기술적 요소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³⁰⁾ 이상의 연구는 ICA 건축기록에 대한 기록관리 지침을 참고하여 진행하였다. 일제시기 건축도면 관련 김태웅의 연구가 있다. 그는 몇몇의 설계도면으로 근대건축의 내용과 특징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어 일제강점기 건축도면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건축 공정 단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³¹⁾ 이우중, 우동선, 전봉희는 국가기록원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조선총독부의 건축조직과 문서관리체계를 파악하였다. 원본도면과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존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평가·분류하였다.³²⁾ 이와 같이 건축분야 연구에서도 건축기록의 가치와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 실정에 맞는 건축관과 아카이브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대건축기록물의 범위를 공공기록과 민간기록을 모두 포함하여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기록물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체적인 디지털 아카이빙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선 연구들은 건축기록물 모두를 포함하거나 건축문화재, 근·현대 기록이 대상이었으나 근대건축물 건립과정 상 여러 방면에서 기록물이 수집, 생산된 것을 반영하여 근대건축기록물의 범위를 정하였다. 이러한 기록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자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 구축이 요구되며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디지털 아카이빙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근대기 개항장을 중심으로 발달된 다른 도시의 근대건축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설립과 기관들 간의 협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근대건축기록물 이용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27) 이우중, 2003, 「건축 아카이브의 기능과 운영」, 『건축』 47(8), 대한건축학회

28) 임창복, 2003, 「건축박물관의 건립을 제안하며」, 『건축』 47(8), 대한건축학회

29) 박찬승, 2003, 「기록물관리법과 건축기록물 보존」, 『건축』 47(8), 대한건축학회

30) 지찬호, 2003, 「건축 기록물의 보존과 활용」, 『건축』 47(8), 대한건축학회

31) 김태웅, 2003, 「일제강점기 건축기록물의 생산과 보존」, 『건축』 47(8), 대한건축학회

32) 이우중 외, 2000, 「일제시기 건축 도면의 보존 현황 - 정부기록보존소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 21(1), 대한건축학회

근대시기의 올바른 역사관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대건축기록물의 디지털 아카이브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근대건축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근대건축물이 많이 남아있는 군산지역을 선정하였다. 근대의 기억을 담은 장소로써 의미가 있는 군산 근대건축물에 대한 가치와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디지털 아카이빙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군산 근대건축기록물에 기록학적 방법론을 적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병행하였다.

첫째, 개항 전·후 군산의 역사와 도시형성과정의 흐름을 파악하고 건축기록물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근대건축기록물의 아카이빙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군산지역의 지리적 요건, 개항과 도시계획의 영향으로 근대건축물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근대건축기록물의 가치와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형성과 의미, 현황과 특징, 종류와 유형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형성과 의미에서는 개항과 함께 근대도시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어떠한 건축물이 설립되었는지 확인하고, 설립과정과 목적을 통해 그 가치를 역사적·건축학적 의미로 나누어 살펴본다. 그리고 현존하는 근대건축물 중 문화재와 건축자산으로 인정된 건축물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파악한다. 현황과 특징에서는 국가기록원, 문화재청, 군산시를 중심으로 근대건축물의 수집, 분류와 기술,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종류와 유형에서는 근대 시기 건축 활동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생산·수집된 기록물의 유형과 종류를 파악한다.

셋째, 국내·외 근대건축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빙 현황을 분석한다.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아카이브를 기준으로 국내는 오픈소스 기반 디지털 아카이브 중에서 오메카(Omeka)를 적용한 공주학아카이브와 PNU 로컬리티 아카이브, 인천학아카이브를 선정한다. 국외는 근대 식민지배 기억의 장소인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박물관, 상하이시 당안관을 선정하고 디지털 아카이브의 개요, 수집, 분류 및 기술, 서비스를 분석하여 활용방안을 제안한다.

넷째, 근대건축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빙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론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방안으로 기록화 범주를 설

정하고 참여형 아카이브와 오메카(Omeka)시스템에 대해 알아본다.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 분류 및 기술, 서비스로 나누어 구체적인 구축 프로세스 방안을 제시한다.

2. 근대건축기록물 가치와 현황

1) 근대건축기록물의 형성과 의미

군산은 예부터 지리적으로 대내외 교역이 활발한 곳이었다. 백제시대에는 수도 사비성의 관문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일본 등을 오고가던 사신들의 통로이자 해양 경제의 중심지였다. 그리고 고려시대 초기에는 60개의 조창 중 조종포가 있었고 후기에는 전국 12개의 조창 중 임피에 진성창을 설치해 충남과 전북의 쌀을 모아 운반하던 곳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칠읍해창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최고 곡창지대인 호남평야의 쌀 창고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나간 쌀 집산지로 조운제도에 있어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외 해상 방어를 목적으로 군산진과 고군산진을 설치했던 경제적·군사적 요충지였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가진 군산은 부산, 원산, 인천의 개항과 달리 1899년 5월 1일 대한제국 칙령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개항하였다. 이후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독일과 ‘각국 조계 장정’을 체결하고 영화동, 장미동, 중앙로 1가를 중심으로 각국 공동조계지가 설정되었다.³³⁾ 조계지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자치권이 부여되어 거류지회를 조직하고 조계지를 운영할 수 있었다. 격자형 도시공간이 계획되면서 도로망에 본정통, 전주통, 대화정, 옥정, 명치청과 1조통~9조통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주택, 교량, 학교, 병원 같은 각종 시설물이 들어섰다.³⁴⁾

근대건축물 시기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개항기(1899~1909년) 대한제국은 조계지를 관리하기 위해 옥구 감리서 등 공공업무시설을 건립하였다. 일본 민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민간 상업, 업무시설도 건설되었다. 도시기반시설확립기(1910~1929년)에 도로와 철도의 건설, 1·2차 축항공사, 부잔교의 설치와 함께 시가지가 형성되고 확장되면서 식민지배에 필요한 행정조직, 금융시설, 농장시설, 학교시설, 종교시설을 통해 근대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전시수

33) 김중규, 2001, 『군산역사이야기』, 도서출판 나인, 45~46쪽

34) 디지털군산문화대전 각국 거류지회

(<http://gunsan.grandculture.net/Contents/Index?local=gunsan.>) ‘참조’

탈이 강화되는 도시확장기(1930~1945년)에 근대적 교통기관, 전신, 전화, 통신 제도가 도입되고 전기, 상하수도, 교육기관, 공원, 병·의원 등의 시설들이 많이 들어섰다. 기존의 철도, 도로, 항만 등의 재정비와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는 공업시설을 확충하였다.³⁵⁾ 주요 근대건축물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군산 시가지도(1934)³⁶⁾

군산 근대건축물의 설립 과정과 목적을 통해 볼 경우 그 가치는 크게 역사적인 차원과 건축사적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일제는 원활한 쌀 수탈과 식민지 통치를 위한 목적으로 근대건축물과 시설물을 건립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일본은 정치적 지배에 앞서 식민지 금융시설을 구축하였다. 개항 후 일본인 상공업자들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한국인 상대로 고리대금 행위와 매점매석 등 상권을 장악해 나갔다. 미곡 수출을 위해 근대적 항만시설과 도로, 철도 등을 건설하면서 군산은 급격히 변화되었다. 서해안의 특성상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갯벌 때문에 큰 배의 출입이 어려워 1차 축항공사(1905~1908)를 통해 금강 해안 일부를 매립하여 잔교 1기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일본군 군수품과 쌀을 편리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전주~군산 간 도로를 개통하였다. 쌀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 옥구서부수리조합을 설립하고 미제저수지와 수로를 건설하여 농사에 필요한 물을 공급했다.³⁷⁾ 개항 이후 2차 축항공사(1909~1915)에서 화물전용철도를 내항까지 연결하고 고정 잔교 3기를 건설하여 수출입 화물 하역의 이용도를 높였다. 또한

35) 송석기, 2004, 앞의 논문, 137~143쪽

36) 송석기, 2004, 앞의 논문, 142쪽

37) 김중규, 2001, 앞의 책, 206~207쪽

옥구 지역에 농장을 설립하여 간척사업을 진행하고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옥구저수지를 만들었다.³⁸⁾ 이어 대륙 진출을 목적으로 군산 어청도 등대를 건립하였다. 3차 축항공사(1926~1932)를 통해 미곡 수탈을 확대하고자 내항에 화물 하치장을 만들고 부잔교 3기를 설치하였다. 옥상에는 창고 3동을 건설하여 쌀 25만 가마를 보관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해망굴을 개통해 군산 내항과 해망동을 연결하였다. 4차 축항공사(1936~1938)는 부잔교 밑에 대형 부잔교 1기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함선을 연결하여 기선 6척을 접안했고 창고 2동이 신축되었다. 이 시기 일본으로 수출된 미곡은 전국 미곡수출량의 25%에 달하였고 군산항은 인천, 부산을 이은 3대 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³⁹⁾ 이처럼 일제는 미곡 수탈을 위해 도로, 해망굴, 군산선, 대규모 축항공사 등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였고 이를 통해 수탈의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근대건축물에 서양식 건축양식과 기술이 적용되었다. 건축 재료가 흙과 나무에서 벽돌과 콘크리트로 변화되는 등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1894년 이후부터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가능해지면서 서양식 건축물과 일식건축물이 세워졌다. 근대 초기 서양식 건축은 주로 선교사와 서양 건축을 공부한 일본인 건축가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로마네스크와 고딕양식을 모방하여 건축되었다. 일식건축물은 대부분 일본에서 들여온 자재와 기술로 지어졌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근대 초기 서양식 건축기법으로 지은 벽돌 조적조 건축물이며 독일인에 의해 설계되었다. 구 서울역사와 구 한국은행 본점과 더불어 서양 고전주의 3대 건축물로 건축학적으로 가치가 높다.⁴⁰⁾ 구 일본 18은행 군산지점 본관은 목골조와 왕대공 트러스 구조 형식이며 소규모 주택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벽장과 중복도를 이은 공간은 일본 건축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⁴¹⁾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은 벽돌 조적조 건물이며 전체적인 외관은 사각형 평면에 우진각지붕을 올린 형태이다. 서양식 고전건축의 모습과 근대 분리와 양식을 따르고 있다. 특히 목조트러스의 형태와 구성은 국내 근대건축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워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다.⁴²⁾ 동국사 대웅전은 현재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일본식 사찰이며 정면 5칸, 측면 5칸의 목조 정방형 단층 팔작집 형태인 일본 에도시대 건축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⁴³⁾ 개항 초기 일본인들

38) 김중규, 2001, 앞의 책, 217~220쪽

39) 김중규, 2001, 앞의 책, 117~119, 203~205쪽

40) 김중규, 2001, 앞의 책, 162~163쪽

41) 문화재청, 2008, 『구 나가사키18은행 군산지점 기록화 조사 보고서』, 63~64쪽

42) 문화재청, 2009,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기록화 조사 보고서』, 92~93쪽

43) 문화재청, 2005, 『군산 동국사 대웅전 기록화 조사 보고서』, 63~64쪽

은 한옥을 빌려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토지 소유가 가능해지면서 주택을 건립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식주택들은 일식기와를 사용하였으며 현관, 다다미방, 벽장, 정원 등에서 일본식 건축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주거용과 상점을 겸한 형태로 나뉘며 일반적인 주거용 주택은 중규모 단독주택과 여러 채가 하나의 동으로 이루어진 장옥형태로 구분된다.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은 대표적인 대규모 주택이다. 목조 2층 건물이며 본채와 객실 건물 사이에 일본식 정원이 있다. 일식점토기와, 박공 및 합각지붕, 목재비늘판벽, 부엌지붕의 둥근 서까래와 다다미방 등이 일본식 주택이지만 온돌방, 부엌, 굴뚝 등에서 우리나라의 주거형태가 반영되어 있다.⁴⁴⁾

보존가치가 높은 근대건축물은 문화재와 건축자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군산 근대건축물은 23건이다.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군산 근대건축물 문화재 등록현황⁴⁵⁾

유 형	건 축 물
업무시설	구 군산세관 본관(사적 제545호), 구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등록문화재 제372호),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등록문화재 제374호),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등록문화재 제600호)
주거시설	군산 발산리 구 일본인 농장 창고(등록문화재 제182호),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등록문화재 제183호), 군산 구 조선운송주식회사 사택(등록문화재 제725호), 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관사(등록문화재 제726호), 이영춘가옥(전북유형문화재 제200호)
산업시설 및 기타시설물	군산 해망굴(등록문화재 제184호), 군산 구 제1수원지 제방(등록문화재 제207호), 군산 구 임피역(등록문화재 제208호), 군산 어청도 등대(등록문화재 제378호),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등록문화재 제719호), 군산 내항 뜰다리 부두(등록문화재 제719-1호), 군산 내항 호안시설(등록문화재 제719-2호), 군산 내항 철도(등록문화재 제719-3호), 군산 구 제일사료주식회사 공장(등록문화재 제719-4호), 군산 경기화학약품상사 저장탱크(등록문화재 제719-5호), 군산 빈혜원(등록문화재 제723호), 군산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등록문화재 제724호)
종교시설	군산 동국사 대웅전(등록문화재 제64호), 군산 둔율동 성당(등록문화재 제677호)

한편 근대건축물 건축자산 조사 연혁은 다음과 같다. 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군산 근대역사문화지구 근대건축물 1차 조사에서 172개 소를 확인하였다. 2차 조사는 2014년 군산시 도시재생선도지역 활성화계획 수립 시 근대·일반건축물 리모델링 보조사업의 지원계획 및 사업시행에 필요

44) 문화재청, 2007, 『군산 신흥동 구 히로쓰가옥 기록화 조사 보고서』, 67·161쪽

45)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유산(<http://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참조’

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1차 조사에 기초하여 문화재 5곳, 멸실 39곳을 제외하고 41곳을 신규 발굴하여 최종 169건(355동)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어 2017년 건축자산밀집지역의 면 단위 관리를 위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선도지역과 인접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존 도시재생선도지역 내 건축물을 전수 조사하고 근대건축물 169건(355동)을 재검토하여 문화재 1곳과 멸실 및 자산가치가 상실된 6곳을 제외하고 신규 발굴 13곳을 추가하여 최종 175건(441동)으로 집계되었다.⁴⁶⁾ 근대건축물 위치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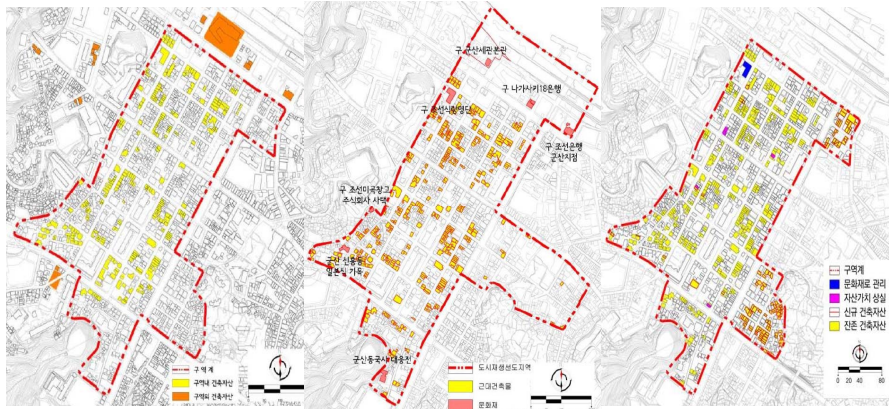


그림 2. 근대건축물 위치도(2007년 · 2014년 · 2017년)⁴⁷⁾

이처럼 군산 근대건축물은 개항 이후 도시가 형성되면서 설립되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원활한 수탈과 식민지 통치를 목적으로 시설을 건립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리고 서양식 건축양식과 기법이 도입되어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문화재와 건축자산으로 관리되고 있다.

2) 근대건축기록물의 현황과 특징

근대건축기록물 생산과정은 다음과 같다. 대한제국 영신도감과 탁지부 건축소를 거쳐 조선총독부 총무부 회계국 영선과, 탁지부 세관 공사과, 철도국 공

46) 군산시, 2017, 앞의 보고서, 35 · 51 · 53 · 63쪽

47) 군산시, 2017, 앞의 보고서, 35 · 43 · 63쪽

무과 및 건설과, 통신국 공무과 등에 건축 관련 부서를 두어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밖에도 각 지방통치기구에 건축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였다. 모든 공문서는 집행이 끝나면 완결표시와 보존 연한을 표시하여 총독부 문서과에 보존하였다.⁴⁸⁾

(1)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은 조선총독부에서 생산된 기록을 관리하고 웹페이지를 통해 조선총독부기록물과 일제시기 건축도면 아카이브 기록정보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조선총독부기록물은 일제의 식민통치 실상을 규명하거나 각종 신분, 재산을 증빙하는데 활용되는 국가기록이다. 메뉴는 조선총독부 기록물개요, 조선총독부 조직변천연혁, 부서별 대표기록물(건축·회계·세무·위생, 지방행정, 수리조합 등), 기록물 기능분류, 상세검색(키워드, 생산년도, 생산기관, 분야선택), 분류검색, 가나다검색, 관련사이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밖에도 통합검색, 주요기록물 소개, 인기기록물, 조선총독부기록물 분류를 메인에 배치하였으며 왼쪽하단에 기록물 원문 따로보기, 조선총독부 기록물 주요도서 해제와 조선총독부 관보, 일제간제연행자명부,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토지조사사업관련 지적기록물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⁴⁹⁾ 이 중에서 군산지역 조선총독부 일반문서는 전체 217건이다. 대표적으로 옥구서부수리조합 기록물 기술요소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옥구서부수리조합 기록물 기술요소⁵⁰⁾

48) 국가기록원, 2008,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 I』, 14~17쪽

49)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기록물(<http://theme.archives.go.kr/next/government/viewMain.do>)

50)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기록물 옥구서부수리조합(<http://theme.archives.go.kr/next/government/viewGovernmentArchives.do?id=000153884>)

또한 일제시기 건축도면 아카이브는 조선총독부에서 건축한 건축물의 설계 원도 26,000여 매를 정리하여 학교 건축도면 콘텐츠와 고적·관사·사법·형행 등 건축도면 콘텐츠로 제공하고 있다. 근대건축물이 대부분 멸실되어 가는 상황에서 당시에 생산된 기록은 학술적·역사적 가치가 높다. 고적·관사·사법·형행 등 건축도면 콘텐츠 메뉴는 주제별 해제(각급 기관 및 지방 행정시설편, 의료·세관 등) 3D 복원(조선총독부 남산, 탁지부 건축소 청사 등), 기록물 검색(통합·상세, 해제, 가나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산지역 일제시기 건축도면은 총 127매이다.⁵¹⁾ 건축도면 해제에 표시된 도면 목록화 범주로는 원본폴더번호, 원본도면번호, 도면고유번호, 주제, 시설유형, 시설명, 개별건물명, 공사유형, 지역, 생산년도, 기록물유형, 출처, 도면내용, 도면명, 필기구, 도면재질, 기타 등이 설정되어 있다.⁵²⁾ 군산 자혜의원 도면 기술요소는 다음 <그림 4>와 같다.



그림 4. 군산 자혜의원 도면 기술요소⁵³⁾

이와 같이 옥구서부수리조합 기록물 기술요소에서 이미지가 제공되지 않거나 일부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기술요소 표준 반영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도면의 기술요소, 규칙, 메타데이터 항목이 없었다. 따라서 도면의 출처, 인물·단체의 정보, 축척·치수·측정단위 등이 추가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⁵⁴⁾

51) 국가기록원 일제시기 건축도면(<http://theme.archives.go.kr/next/government/viewMain.do>) ‘참조’

52) 국가기록원, 2010,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 IV』, 15쪽

53) 국가기록원 일제시기 건축도면 아카이브(<http://theme.archives.go.kr/next/plan/searchDetail.do>)

54) 이정용, 2018, 앞의 논문, 26~28쪽

(2) 문화재청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등록·관리하면서 생산·수집된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근대문화재과에서는 근대건축물 문헌조사와 현황실측 등을 기록하여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한 수리·복원자료를 확보하고 학술 및 연구자료 등으로 제공하기 위해 2004년부터 「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록화 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⁵⁵⁾ 군산 문화재 기록화 조사사업에서 수집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군산 동국사 대웅전(2005) 중요 기록은 동국사 연혁이 적힌 범종 새김글씨, 재건 상량문, 조선총독부 관보, 동국사 위치가 표시된 지적도이다.⁵⁶⁾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2007)은 1934년 군산부시가지도를 통해 당시의 가옥 위치를 알 수 있다.⁵⁷⁾ 구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2008)은 최초 나가사키 18은행 사진과 폐쇄등기부등본이 수집되었다.⁵⁸⁾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2009)은 상량문, 폐쇄등기부등본, 사진, 1920년 8월 19일 「동아일보」 3면, 1929년~1932년까지 영업소별 손익표, 조선은행 영업소 일람표, 조선은행 영업소 소재도, 군산지역 내 은행과 금융조합에 대한 기록이 있다.⁵⁹⁾ 군산 구 임피역을 제외하고 보고서를 간행물로 발간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외 문화유산정보는 국가문화유산포털에 서비스되고 있다. 메인 페이지 메뉴는 유네스코 등재유산, 궁궐·종묘, 조선왕릉, 기록유산, 문화유산 검색, 3D 문화유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등록문화재는 그 특성상 건축물의 유형(종교, 업무, 교육, 주거숙박, 전쟁관련, 문화집회, 의료, 산업, 공공용, 인물기념, 상업, 기타시설물)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기록물 관련 분류체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기술요소는 사진, 분류, 수량·면적, 지정(등록)일, 소재지, 시대, 소유자, 관리자이다. 이외에도 근대건축물 QR코드, 설명 및 내레이션, 보수 전 건축물 및 주변전경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기록화 조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각종 조사보고서, 동영상, 4개 국어 내레이션, 도면 등이 추가로 제공되고 있으나 각각 차이가 있었다.⁶⁰⁾ 따라서 일정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록에 대한 맥락정보와 기술요소가 필요하다.

55) 문화재청(<http://www.cha.go.kr>)

56) 문화재청, 2005, 『군산 동국사 대웅전 기록화 조사 보고서』, 36·41쪽

57) 문화재청, 2007, 『군산 신흥동 구 히로쓰 가옥 기록화 조사 보고서』, 37쪽

58) 문화재청, 2008, 『구 나가사키18은행 군산지점 기록화 조사 보고서』, 37·39쪽

59) 문화재청, 2009,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기록화 조사 보고서』, 43~47쪽

60)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3) 군산시

군산시는 문화재와 건축자산에 해당하는 근대건축물을 보존 관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⁶¹⁾ 수집된 일부 기록은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을 보수·복원한 군산근대건축관에서 전시되고 있다. 주요 건축물 모형, 사진, 근대기 건축도구와 자재, 구 군산세관 기와, 전선 및 애자를 관람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조선은행’ 전시실에는 조선은행 군산지점 상량문·영업실적·직원사진, 제일은행 군산출장소 출근부, 일제강점기 조선은행에서 발행한 화폐 등을 전시해 놓았다. 전시실 사이에 복원 전 벽체, 구 미즈상사와 구 나가사키 18은행 상량문, 근대기 건축도면, 월명동 근대가옥 망새를 확인할 수 있다. 2층에는 조선은행의 복원과정과 보수공법, 일제강점기 건축물의 특성, 당시 군산과 관련된 신문기사 등을 전시하고 있다.⁶²⁾

근대건축관과 전시물에 QR코드를 부착해 군산시 문화관광 웹 페이지와 연계하여 관광 정보를 제공⁶³⁾하고 있으며 별도의 건축기록물 관련 웹페이지나 디지털 아카이브가 구축되지 않았다. 그밖에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 근대건축물 정보, 사진, 영상, 신문자료와 디지털군산문화대전에서 사진, 근대건축물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기록에 대한 출처가 부족하여 메타데이터, 분류, 기술요소, 서비스 등이 미흡한 상태이다.

근대건축기록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공공 기록은 기획에서 업무의 진행, 종결, 평가과정을 거쳐서 생산되지만 민간기록은 이러한 과정이 없으므로 출처의 원칙을 반영하기 어렵다. 둘째, 공공기록 외의 민간기록은 개인이나 단체 등이 수집하였다가 기증하는 경우가 많아 생산단계에서 부여된 질서를 파악할 수 없다. 셋째, 시대적 상황으로 가명이나 필명으로 기록물이 생산되었거나 다른 지역이나 단체 등에 보관, 생산자를 밝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주체나 생산자 파악이 어렵다. 넷째, 전쟁을 거치면서 소실, 분실, 폐기되었고 기록물이 남아있더라도 보관 장소로 부적합한 곳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보존상태가 좋지 않다. 부스러짐, 황변화, 건조화 잉크탈색 등의 현상이 발생한다. 다섯째, 건축 활동 관련 다양한 개인, 기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공문서, 도면, 사진, 모형, 스케치, 신문기사 등과 민간기록에서 생산된 기록물이 많아 기록물의 유형이 다양하다.⁶⁴⁾

61) 군산시(<http://www.gunsan.go.kr>)

62) 필자가 군산근대건축관에 방문하여 작성

63) 군산시 문화관광(<http://www.gunsan.go.kr/tour>)

64) 주소영, 2010, 「대구 관련 근대기록물 소장현황 및 활용」, 경북대학교 석사, 18-20쪽 ‘참조’

이와 같이 근대건축기록물은 영신도감과 탁지부 건축소를 거쳐 한일합방 이후에는 총무부 회계국 영선과 등에서 건축 관련 문서를 관리하였다. 이 기록은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문화재청, 군산시에서 각각 수집·보관하고 웹페이지를 통해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메타데이터, 분류체계, 기술요소의 부재로 서비스를 제공에 어려움이 있고 기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근대건축물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기록의 특징은 유형이 다양하여 출처의 원칙과 원질서 파악이 어렵고 종이의 특성상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다.

3) 근대건축기록물의 종류와 유형

근대건축기록물은 근대 시기 건축 활동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생산·수집된 모든 종류의 기록물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근대건축기록물의 유형과 종류⁶⁵⁾

유형	종류
일반문서	정부간행물, 일반도서, 회의록, 공사 사양서, 내역서, 공사기제부분검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 지출결의서, 준공계 등
도면	지적도, 지형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상세도, 건구표 등
사진·필름류	건축물 전경사진 등
기타	지도, 신문기사, 상량문, 조선총독부 관보 등

일반문서는 지방행정 영선관계자료이며 대부분 내무국 지방과와 각 지방행정기관, 법무국 행정과와 각 지역의 형무소장 또는 형무지소장이 건축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배부·집행하고 진행 추이와 결과를 보고하고 지시한 내용이다. 주로 각 군청에서 도청으로 보낸 건축사업 관련 요구사항, 도청에서 내무국 지방과에 보낸 공문, 조치를 통고하는 문서들이다. 건축 공사에 관련된 서류는 주로 입찰 관련문서, 사양서, 지출 결의서 및 첨부 도면이다. 군산 관련 기록물철은 옥구서부수리조합 문서철, 군산부 문서철, 군산 전주부 관계서철 등이 있다.⁶⁶⁾

65)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기록물(<http://theme.archives.go.kr/next/government/viewMain.do>) ‘참조’

66) 전봉희, 2005, 『건축 아카이브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연구 - 정부기록보존소 소장 일제시기 자료를 대상으로-』, 『기초과학연구사업 학술기사』, 한국연구재단, 26쪽

건축도면에는 군산 자혜의원, 전주감옥 군산분감, 군산이사청, 군산부청, 곡물검사소 군산지소 등이 있으며 공사유형에 따라 설비신설, 건물신축, 건물증개축, 설비추가, 건물신축 변경 등으로 나뉜다.

사진·필름류는 공사과정과 준공 이후의 시점까지 모습을 모두 담고 있으며 군산의료원, 개항 35주년 기념탑, 거류민단 사무소, 초기 이사청, 군산신사, 군산부청, 구 시청청사, 도서관, 우편국, 경찰서, 군산수인보호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남아있는 군산 동국사 대웅전, 구 군산부윤 관사, 구 군산세관,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등도 있다.⁶⁷⁾ 이외에도 당시 제작된 군산항도(1906), 군산 시가지도(1923), 군산부 시가지도(1934), 군산시가지도(1935)를 통해 군산 시가지와 주요 건축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⁶⁸⁾

3. 국내·외 근대건축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빙 현황

1) 국내 근대건축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빙 현황과 분석

(1) 공주학아카이브

공주학아카이브는 지역과 관련된 역사 기록물 그리고 지리, 환경, 행정, 산업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주의 정체성 확립과 공주학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구축하였다. 웹페이지 메뉴는 기록보기, 전시보기, 모아보기, 분류보기, 지역뉴스검색, 참여하기, 소개로 구성되어 있다. 메인 페이지는 상세검색과 주요기록, 사진, 지도, 아카이브 홍보 동영상, 시민기록연구자 양성 프로그램 공주를 일상을 기록하는 사람들 카페 바로가기 서비스를 배치하였다.

기록보기에서 사진류 22,718건, 문서류 1,236건, 도서관행물류 7,650건, 박물관류 492건, 시청각류 436건, 구술류 48건, 공주학문헌총목록 14,052건을 유형별로 나누어 총 46,636건의 기록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등록문화재 ‘공주 중학동 구 선교사 가옥’에 대한 기록은 사진, 엽서, 기록화 조사보고서, 수리보고서 등이 있다. 기술요소는 기본보기에 제목, 유형, 키워드, 공개구분, 열람조건, SNS로 북마크, 댓글 입력이 있으며 상세보기에 출처분류, 시대분류,

67) 군산근대역사박물관(<http://museum.gunsan.go.kr/index.do>)

68) 김중규, 2001, 앞의 책, 115~122·133쪽

형태분류, 주제분류, 등록번호, 제목, 소장위치, 공개구분, 공개/비공개 사유, 원본여부, 기증자·수집자, 생산일자, 생산자·생산기관, 발행처, 쪽수, 범위와 내용, 열람조건, 물리적 특성이 기재되어 있다.

전시보기는 고마뉴우스, 그랫슈통신, 월간공주, VR로 보는 공주의 기억, 일제강점기 공주 이야기, 웅진문화, 금강교로 보는 공주의 기억, 공주 근대의 풍경, 전자책 일상의 기록에 대한 전시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월간공주’의 공주의료원(구 관립 공주자혜의원)역사에서 옛 지도, 황성신문, 사진으로 설립배경과 의료 활동을 설명하고 도면을 통해 자혜의원의 구조와 공간의 변화를 보여준다. 시민이 기억하는 공주의료원은 매일신보와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VR로 보는 공주의 기억’은 VR(Virtual Reality)기법을 활용하여 옛 기억이 담겨진 자료와 오늘날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공주 이야기’에서는 일제강점기를 구슬로써 풀어내 동영상과 글을 제공하고 있다. ‘금강교로 보는 공주의 기억’에서 금강교의 역사와 기억을 사진과 타임라인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모아보기는 공주와 관련된 엽서, 금강컬렉션 등 주제별로 컬렉션을 제공하고 있다. 분류보기는 시대, 출처, 주제, 형태로 구분하고 주요 태그와 45개의 키워드를 개발하여 검색과 열람 편의를 위한 가이드로 제공하고 있다. 참여하기에서 공주 관련 기록물을 기증 할 수 있다. 일반기증, 시민기록활동, 학교기록활동으로 대상을 구분하여 기증 가능한 기록물의 유형과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증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톡스토리, 네이버에 공유하고 댓글도 입력 할 수 있다.⁶⁹⁾

(2) PNU 로컬리티 아카이브

PNU(Pusan National University) 로컬리티 아카이브는 부산의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다양한 기록들을 ‘부산, 공간의 기억’, ‘밀양, 끝나지 않은 이야기’, ‘부산, 노동을 품다’ 라는 주제로 구성하였다.⁷⁰⁾ 이 중에서 ‘부산, 공간의 기억’은 개항 이후 전근대 농·어업사회에서 근대 산업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메뉴는 기록, 기록컬렉션, 전시섹션, 갤러리, 태그, 타임라인, 관련장소, 참여, 소개로 구성되어 있다. 메인 페이지를 살펴보면 검색기능, 특별전시섹션, 특별기록컬렉션, 특별전시기록, 최근입수기록, 로컬리티 아카이브 허브, 참여하기, 관련동영상, 관련장소가 배치되어 있다.

69) 공주학아카이브(<http://kjha.kongju.ac.kr/archive>)

70) PNU 로컬리티 아카이브(<http://localityarchives.org>)

기록은 조선총독부관보 등 4,486건이며 이 중 ‘조선총독부관보 제2455호 고시 제173호’의 기술요소는 표제, 주제, 기술, 생산자, 발행처·출판사, 날짜, 유형, 식별기호, 파일, 문서뷰어이다. 기록컬렉션에서는 부산 지역의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들을 중구, 서구, 영도구 등 17개의 컬렉션으로 제공하고 있다. 전시색션은 전쟁, 엽서로 보는 일제강점기의 부산, 문화재, 부산 기차역 역사 등 주제·장소별, 특별전시로 구성하여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등록문화재 전체 18건 중 8건의 기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 초량동 일본식 가옥’에 대한 이미지, 표제, 주제, 기술, 생산자, 발행처·출판사, 날짜, 기여자, 파일형식, 유형, 식별기호, 내용범위, 컬렉션, 파일, 관련장소가 기재되어 있다.

갤러리는 사진과 이미지 파일을 모두 모아 구성하였고 태그로 설정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타임라인은 부산 지역의 특정 사건을 중요한 사안별로 시간순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기록 아이템을 클릭하면 간략보기와 상세보기가 가능하다. 관련장소는 부산 지역의 역사와 관련된 일련의 기록들이 해당 장소별로 2,732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링크나 지도를 클릭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 지역의 역사와 관련된 사진, 동영상, 이야기(경험, 사연), 음성녹음, 문서, 박물 등 다양한 기록물을 기증받고자 온·오프라인 참여방법, 기간, 혜택을 안내하며 회원가입 후에 기증 할 수 있다.⁷¹⁾

(3) 인천학 아카이브

인천학 아카이브는 인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관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자 구축되었다. 개항 이후부터 일제강점기 이미지 1,500건, 고지도 및 지적도 500건, 신문기사 10,000건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기능은 검색, 팝업, 지도오버랩, 마커, 지도컨트롤, 시기별 타임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리정보 위에 장소를 중첩하여 기록을 제공하고 일반지도, 색각지도, 큰글씨지도, 백지도가 제공되고 있다. 자료는 텍스트와 이미지로 구분되며 원자료명, 제작연도, 문헌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키워드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제공되며 이용자들은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구글 플러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트위터에 공유할 수 있다.⁷²⁾

따라서 세 지역 모두 각 도시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구축된 아카이브이며 군산 근대건축기록물 아카이빙 방안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주학 아카이브에

71) 부산, 공간의 기억(<http://bpa.localityarchives.org>)

72) 인천학 디지털 아카이브(<http://www.isi.or.kr/study/archive/index.php>)

서는 다양한 전시와 컬렉션, 기술요소와 기증 기능을, PNU 로컬리티 아카이브에서는 주제·시간·공간별 구성과 검색 기능을, 인천학 아카이브에서는 지리 정보위에 장소와 기록을 중첩한 기능과 외국어 지원 기능을 참고 할 수 있다.

2) 국외 근대건축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빙 현황과 분석

(1)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박물관

폴란드 남부 오시비엥침(Oswiecim)시에 건설된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독일명:Auschwitz Birkenau) 박물관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집단수용소 및 유대인 학살이 이루어진 곳이다. 현재 수용소 시설 유지보전, 수용소 희생자들의 유품 발굴 및 보존, 학술연구 및 관련 자료 공개 활동을 하고 있다. 아우슈비츠 제1수용소(오시비엥침)와 제2수용소 비르케나우(브제진카)로 구성되어 희생자들의 유품 및 각종 문서와 사진, 수감자들이 만든 예술품과 해방 후 생존자들이 그린 회화, 스케치 작품을 전시하여 당시 수감자들의 실상을 보여 주고 있다. 박물관 문서고에 수용소 관련 공식문서 원본(사망진단서철 48권, 인프라 시설 및 오시비엥침시 확장사업계획 서류철 248권, 독일 SS 위생청 문서철 64권, 수감자 신상명세서철 16권 등),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수집한 수용소 관련 문서를 촬영한 마이크로필름 800,000장, 독일전범재판문서, 수용소 내부 및 인근에서 벌어진 저항운동 관련 기록, 수감자들 편지 및 카드 8,000장, 생존자 육성기록 2,000여 점, 수감자 증명사진 원판 39,000여 장, 유대인들이 소지했던 가족사진 2,500여 장 등을 소장하고 있다. 이 기록은 박물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⁷³⁾

박물관 웹 페이지 메뉴는 홈페이지(Home Page), 서점(Bookstore), 기부(Donate), 방문예약(Reservation), 검색(Search), 폴란드(Polski), 영어(无A崙óΩñЖ)로 구성되어 있다. 메인 페이지는 박물관(Museum), 역사(History), 방문(Visiting), 교육(Education)과 교육매거진, 뉴스,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컬렉션, 전시회 등이 배치되어 있다. 박물관-포토 갤러리-사진 및 문서에서 카테고리 별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수용자카드에서는 사진, 날짜, 수용자 수용소 번호, 이름 등이 제공되고 있다. 온라인 전시는 7개로 나누어 진행되며 ‘아우슈비츠, 기억, 세계’ 는 아우슈비츠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의

73)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 역사와 현재(http://auschwitz.org/gfx/auschwitz/userfiles/auschwitz/historia_terazniejszosc/auschwitz_historia_i_terazniejszosc_wer_koreanska_2010.pdf) ‘참조’

아우슈비츠 확장 계획' 은 수용소 경계를 포함한 도시 재개발의 일반 계획, 도면, 모형을 제공하고 있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투어 및 워크숍,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 비디오 강의를 포함한 1박 2일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교사들에게 아우슈비츠와 홀로코스트에 관한 출판물과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박물관 언어서비스는 영어와 폴란드어로 제공하며, 아우슈비츠 가이드는 전 세계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한국어 외 10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⁷⁴⁾

(2) 상하이시 당안관

상하이시는 '도시기억개발프로젝트⁷⁵⁾' 를 통해 도시의 변천과정을 기록하였다. 오래된 건물과 거리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습이나 일반대중들의 생활, 민속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기록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문화산업·전시·테마활동 등에 활용하고 있다.⁷⁶⁾ 상하이시 당안관 와이탄 신관(2004)⁷⁷⁾은 기록물 2,400,000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1~2층은 테마 전시관, 3~4층은 당안 전시실, 5층은 지질문서와 전자문서의 열람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웹페이지에서도 기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⁷⁸⁾

당안관 메뉴는 메인화면(首页), 업무지도(档案政务), 정책 법규(政策法规), 파일 가이드(档案指南), 서비스 검색(查阅服务), 학생교육(学生课堂), 파일백과(档案百科), 문서박람회(档案博览), 문서포럼(档案论坛), 문서학회(档案学会)로 구성되어 있다. 화면 왼쪽은 검색창과 게시판, 특집기사, 기증, 전자잡지, 최신기사, 현재뉴스, 국내기사, 국제전망, 역사연구, 기록관, 온라인 전시회 정보, 방문자 수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책 법규에서 법규 문서와 행정의 법 집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파일 가이드는 15개의 테마와 4개의 목록으로 나누어져 있다. 상하이항 건설 관련 문서는 약 500여 권이며 항구시설설비, 항만공사, 항정관리 등에 포함되어 있다. 상하이시 기록관에 보관된 문서는 지역 제한 없이 열람과 활용이 가능하다.

74)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박물관(<http://auschwitz.org/en>)

75) 도시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사적 의의와 현실가치를 지닌 지역성, 규모성 활동으로 천진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뉴딜(구 도시재생선도지역)과 비슷한 정책이다.

76) 나진희, 2013,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로컬리티 기록화 전략의 적용 : 중국 상해(上海)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 118~127, 2~4쪽

77) 1937년 건축된 중국 최초의 선박회사 초상국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활용

78) 나진희, 2013, 앞의 논문, 56~57쪽

관내문서와 공개문서 검색, 현행문건으로 구분하여 주제, 생산자, 문건번호로 검색이 가능하며 상하이시 행정부서 및 각종 위원회 등의 공문서의 원문을 열람할 수 있으나 상하이시 정부 및 관할 기관 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와이탄 이야기’, ‘옛 상하이시의 길’, ‘도시기억전’ 등이 있다. 파일백과는 전자문서(electronic records), 문서(record/document), 비디오 파일(audio-visual archives) 등의 단어설명과 드라마를 통해 팔천 마대자루 ‘대내 기록물’ 유실 기록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파일 관련 질문과 자주하는 질문(FAQ)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는 댓글과 웹페이지에 대한 개선 의견을 남길 수 있다.⁷⁹⁾

이와 같이 지역을 기반으로 근대 식민지배 기억의 장소에 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박물관은 아우슈비츠의 역사와 교육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며, 상하이시 당안관은 도시 건설 당안 관리 사업을 통해 생산된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점에서 군산 근대건축기록물 아카이빙 방안에 도움을 줄 수 있다.

4. 근대건축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빙 방안

1)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방안

(1) 기록화 범주

군산 근대건축기록물은 도시개발 및 공간 계획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기록화의 범주를 설정한다. 첫째, 지역 내 근대건축물 및 그 주변의 장소를 중심으로 기록화를 추진한다. 둘째, 장소의 선정은 근대건축물 및 그 주변 장소의 경험과 집단기억이 많이 축적된 곳과 근대시기 급격한 공간변화가 이루어진 곳을 기준으로 한다. 셋째, 지역 내 근대건축물 및 그 주변의 장소 경험과 관련된 의미 있는 인물과 공동체를 선정한다.⁸⁰⁾

군산 내향 역사문화공간은 군산항의 역사를 시기별로 구분하고 주요 사건별로 기록화 할 수 있다. 현재의 모습에 물리적인 영향을 준 주요 사건은 축항공사이며 다음 <표 3>과 같다.

79) 상하이시 당안관(<http://www.archives.sh.cn>.)

80) 설문원, 2011, 『디지털 환경에서의 로컬리티 기록화 방법론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한국기록관리학회, 223~225쪽

표 3.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맥락조사 개요⁸¹⁾

<p>“군산은 1899년(광무 3) 5월 1일에 개항되고 각국거류지가 형성되면서 일본인과 청국인들이 모여들었다. 그 배경으로 지리적 인접성, 기후의 동일성, 비옥한 토지, 상업 활동을 통한 이윤 추구가 있다.</p> <p>군산항 축항 공사는 전주통 대화정(全州通 大和町: 영화동), 동빈정 1정목(東濱町一丁目: 장미동), 금정(금동), 정(町: 월명동, 명산동) 등을 매립하여 확장하였다. 1905년(광무 9)부터 시작되어 2차 축항 공사는 1909년(융희 3)~1915년에 군산항 축항 기성회를 주축으로 진행되었고, 3차 축항 공사는 1926년~1932년, 4차 축항 공사는 1936년~1938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마무리되었다. 주로 항만시설, 공공시설, 상업시설이 건립되었다. 항만시설에는 고정 잔교 1기, 고정 잔교 3기가 있고 공공시설에는 도로, 철도, 감리서, 경무서, 세관 및 우체사, 전보사 등이 있으며 상업시설에는 은행, 정미소, 해운회사 등이 있다.</p> <p>현재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은 1899년 개항 이후 각국거류지가 설정되면서 초기 군산항의 모습부터 일제강점기 미곡수탈항으로서 근대항만의 역사와 기능 변화를 보여주는 곳이다. 이 일대는 군산 내항 뜰다리 부두(부잔교), 군산 내항 호안시설, 군산 내항 철도, 군산 구 제일사료주식회사 공장, 군산 경기화학약품상사 저장탱크가 문화재로 보존되고 있다.”</p>
--

이 맥락조사와 함께 수집·생산되어야 할 기록의 유형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기록화 유형 사례⁸²⁾

유형	기록할 내용	생산기록(군산항 축항)
공간	물리적 변화 이력	군산항지도, 도면, 사진
정책	공간과 개인 및 공동체에 영향을 준 정책	공문서 및 전신, 관보·시보, 조약·협약
활동주체	지역 관련 중요한 활동을 했거나 기록을 남기지 못한 개인이나 집단	군산항 축항 기성회(기업기록), 군산 거류지회(단체기록), 부두노동자 및 노점상(개인기록, 구술)
장소경험	장소와 관련된 개인 및 공동체의 활동, 경험	장소와 관련된 각종 행사 및 활동기록, 신문·잡지(인문자료), 문학작품 ‘탁류’(장소경험)
소장기관	해당 기관 및 타 기관에 수집된 이력	디지털화 된 기록

(2) 구축 방식

군산 근대건축기록물은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내·외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록을 연계하여 기록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⁸³⁾ 이에 수집기관, 공동체, 아키비스트, 이용자가 참여하고 구축·운영하는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가 적합하다. 특히 다양한 공동체가 기억의 기록과 활동을 공유할 수 있도록

81) 디지털군산문화대전(http://gun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gunsan&dataType=01&contents_id=GC05700349) ‘참조’
 82) 설문원, 2011, 앞의 논문, 226쪽 ‘참조’
 83) 한국기록관리학회, 2010, 『기록관리론 : 증거와 기억의 과학』 아세아문화사, 265쪽

록 디지털 기술을 제공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참여형 아카이브 유형은 수집주체와 이용자 참여도를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수집주체는 수집기관 주도형, 수집기관-공동체 주도형, 수집기관-공동체-이용자 주도형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수집기관-공동체-이용자 주도형 구축방식을 따른다. 이 방식은 오픈소스 기반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이용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협업지성을 활용하여 내부인력을 보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용자는 기록을 수집, 보존, 활용하는 주체 또는 기록을 제공하는 기증자로 공동체 정체성, 소속감과 디지털 자원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이용자의 참여도에 따라 소극적 참여, 허브방식 참여, 적극적 참여로 구분되며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참여 방식의 유형을 따를 것이다. 이 유형은 이용자가 기록 생산자이자 소비자로 직접 기록정보와 기술, 목록 작성, 수정, 편집하며 아카이브는 기록정보서비스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한다.⁸⁴⁾

(3) 개발 도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재배포, 파생 저작물의 작성과 사용상 제한 없는 라이선스와 함께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이다.⁸⁵⁾ 2012년 인간과 기억아카이브를 시작으로 기록공동체 활동이 지속되면서 오픈소스를 이용한 다양한 디지털 아카이브가 만들어졌다. 예산과 인력 등 인프라가 열악한 소규모 단체에서 비용절감 효과와 기능의 편의성으로 적극 도입되고 있다.⁸⁶⁾

오메카 시스템은 첫째, 참여형 아카이브 개발 원칙을 따른다. 둘째, 적은 비용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어 소규모 로컬리티 아카이브를 구축에 적합하고, 여러 주체가 아카이브 관리할 수 있어 운영을 원활하다는 점이다. 셋째, 여러 주체와 소통함으로써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플러그인(Plug-in)을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한다. 넷째, 기록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전시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⁸⁷⁾

따라서 군산 근대건축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도구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오메카(Omeka)’를 적용하고자 한다. 근대건축물에 대한 기억이나

84) 박진경, 2017, 『사회적 기억을 위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 18~23쪽

85) 안대진, 2019, 앞의 논문, 18쪽

86) 안대진, 2019, 앞의 논문, 2·11쪽

87) 현문수 외, 2014, 앞의 논문, 259~260쪽

기록 생산 의도가 주체별로 상이 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이들의 기억 하나 하나를 세세하게 기록화 할 수 있다.⁸⁸⁾

2)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프로세스

(1) 수집

수집정책은 수집범위와 절차를 규정하여 체계적인 수집활동과 잠재적 기준 독려, 법적 당위성과 내용적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군산 근대건축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의 사명, 목적, 수집대상, 수집 기록의 주제 영역, 수집기록의 형태, 수집범위 등을 명시한 수집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⁸⁹⁾ 군산 근대건축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의 수집정책 초안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군산 근대건축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의 수집정책 초안⁹⁰⁾

<p>1. 사명</p> <p>1) 목적 군산 근대건축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는 개방형·참여형 아카이브를 지향한다. 역사적·문화적 의미가 있는 근대건축물과 관련된 문서, 사진, 음성, 영상, 박물관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디지털화한다. 근대시기 군산의 사회적 기억을 구성하는 기록을 수집, 분류 및 기술하여 디지털화하고 이를 모든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p> <p>2) 이용자 정의 군산 근대건축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는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용자로 규정한다.</p> <p>2. 수집절차</p> <p>군산 근대건축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는 실물 기록물을 수집하지 않으며 디지털 기록물을 보존한다. 이에 수집된 기록물은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하여 보존·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근대건축물과 관련된 많은 기록물 중에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기록물을 선정한다. 군산 근대건축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기록물의 디지털 변환 후 수집, 구술기록의 수집, 이용자참여 기록의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p> <p>1) 디지털 변환 후 수집 근대건축물에 대한 기억과 기록을 가지고 있는 기증자들의 기록을 대여 받아 디지털로 변환하여 수집 한다. 근대건축물 관련 기록물, 언론보도, 문학작품 등을 생산한 기관 또는 개인의 기록 수집과 디지털 변환을 협의한다. 협의 내용에는 기록대여 방식과 기간, 디지털 변환 파일의 공개와 활용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남긴다. 디지털 변환은 온라인 전사가 가능한 디지털 스캔, 디지털 이미지 및 영상 제작, 디지털 음원 변환 등이다.</p>
--

88) 안대진, 2019, 앞의 논문, 167쪽

89) 신동희 외, 2016,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3), 한국기록관리학회, 2쪽.

- 2) 구술기록의 수집
 근대건축물 관련 기억을 지닌 개인의 사회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구술기록을 수집한다. 대상으로는 근대건축물 건축과 그 변화과정을 지켜본 지역주민, 연구자, 언론인, 시민단체, 공공기관 그 외 근대건축물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 등을 포함한다. 구술을 채록할 때에는 반드시 구술자의 동의와 서명을 받는다.
- 3) 이용자 참여 기록의 수집
 근대건축물 관련 기억과 기록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기록물을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아카이브에서 제공되는 기억과 기록은 군산을 기억하는 도구로 새로운 기억을 제공할 것이다. 이 과정을 아카이브에 보존하며 이용자 참여 기록은 주기적으로 가치를 평가하고 채택하여 조직 과정을 거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자들은 제공 내용에 대한 법적인 권한, 이용 시 법적 제한, 개인정보 보호 등의 참여 약관에 동의하여야 한다.
3. 기록의 출처
 군산근대건축관에 소장된 기록을 기초로 기록물을 수집한다. 그리고 근대건축물 관련 기록물을 생산·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를 기록의 출처로 포함한다. 또한 기억의 생산과 재생산에 참여한 주체(소설가, 영화제작자, 예술가 등)와 기억을 공유하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도 포함된다.
4. 수집범위
 - 1) 내용적 범위
 수집기록은 역사적·문화적인 가치를 갖는 기록물에 한정한다. 기록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1899년~1960년 대한제국 및 조선총독부 문서 등 건축생산과 관련된 기록
 (예: 공문서, 건축도면, 사진 및 필름류, 지도 등)
 - (2) 2001년 등록문화재 시행 후 근대건축물 보존과 활용에 대한 기록
 (예: 건축도면, 사진 및 필름류, 지도 등)
 - (3) 2007년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 이후의 기록
 (예: 근대건축물 보존과 활용과 관련된 기록 등)
 - (4) 2014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기록
 (예: 건축자산으로 추가된 근대건축물 관련 기록 등)
 이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록은 형태의 제한 없이 디지털 변환이 가능하면 모두 수집한다.
 - 2) 우선 수집 대상
 다음과 같은 내용적, 형태적 특징을 가진 기록이 우선 수집 대상이다.
 - (1) 군산의 기억을 확장할 수 있는 내용
 (예: 공간 변화 관련 정책 및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기록 등)
 - (2) 형식적, 구조적, 내용적 특성
 (예: 건축 설계자의 도면, 스케치, 모형 등)
 - (3) 공공기록으로 남겨지지 않거나 기록화가 시급한 소외된 주체의 기록
 (예: 지역주민, 건설노동자 기록 등)
5. 저작권
 군산 근대건축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는 공공분야의 기록물을 우선으로 수집 한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허가와 협의를 거쳐 수집하고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
6. 협력 및 기록 공유
 군산 근대건축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는 아카이브의 목적이나 내용을 지향·공유하는 디지털 아카이브와 협력한다. 협력의 범위나 내용은 아카이브에 저장된 기록의 공유, 전시, 학술활동, 출판 등이 포함되며 협력 아카이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7. 의사결정
 군산 근대건축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의 수집정책 및 선별은 전 직원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두어 기록 수집과 평가에 대한 내용을 조언할 수 있다.

기록물의 수집방식은 기증이며 기증서 예시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기록물 기증서 예시

기록물 기증서			
제 목		유 형	()기증 ()위탁 ()대여
기 증 자			
기증자 연락처		이메일주소	
기록물명			
생 산 자			
생산일자	년	월	일
자료형태 및 크기		수 량	
기록물 제목 및 설명			
기증일자	년	월	일
<p>* 기증하시기전에 이용약관을 확인하시고 체크해 주세요.</p> <p><input type="checkbox"/> 기증한 기록의 공개에 동의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모든 법적 소유권, 저작권 등 기록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해당 기관에 양도하며 영구 보존할 가치가 없을 경우 기록의 평가와 처리는 기관에 위임합니다.</p>			
<p>위와 같이 기록물을 기증합니다.</p> <p>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기 증 인 :</p> <p style="text-align: right;">기관 귀하</p>			

(2) 분류 및 기술

군산 근대건축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분류체계는 국내·외 디지털 아카이브 사례를 참고하였다. 기록이 생산된 장소를 지도에 표시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타임라인과 관련 장소를 표시한다. 댓글, 공유, 기증, 전사, 태그 기능에 중점을 두어 다음 <표 7>과 같이 구성하였다.

90) 신동희 외, 2016, 앞의 논문, 19~21쪽 ‘참조’

표 7. 군산 근대건축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분류체계 예시⁹¹⁾

메뉴	세부내용	
웹페이지	검색	웹페이지에서 전체 근대건축기록물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도구 제공, 검색 결과에 해당 기록물과 기록물 페이지로 링크되도록 연결제공 * 통합검색(모든 검색 조건을 포함하여 검색하거나 기록물의 종류를 구분하여 검색) * 상세검색(키워드, 기증자, 제목, 생산일자, 분류, 유형 등) * 카테고리 검색(주요 주제별 컬렉션으로 검색) * 가나다 검색
	전체 메뉴	* 기본메뉴(기록, 기록 컬렉션, 전시 콘텐츠, 갤러리, 태그, 타임라인, 관련장소, 참여, 소개) * 서비스 이용안내(자료 이용방법, 서비스 접근,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 SNS(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 모바일 앱(App)지원
메인 페이지	메인화면	메인화면으로 이동
	기록	기록 유형별 제공(문서, 도서간행물, 사진, 시청각, 박물관, 미술, 구술 등) 건축물 유형별 제공(종교시설, 업무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산업시설 등)
	기록 컬렉션	군산 근대건축기록물과 관련된 기록을 주제와 유형별로 컬렉션을 구성하여 제공(월명동, 신흥동, 중앙로, 장미동, 영화동 등 지역별 구성)
	전시 콘텐츠	교육용 콘텐츠, 홍보용 콘텐츠, 이용자 사용 콘텐츠 제공(일제강점기 군산이야기, 일제시기 쌀 수탈기관, 군산항 축항공사, 등록문화재, 근대 일상의 기억, 근대건축물 3D 복원 콘텐츠 등)
	갤러리	사진이나 이미지 파일을 모아서 구성 함
	태그	등록된 기록을 태그로 설정하여 확인하도록 함
	타임라인	군산지역의 근대건축물과 관련된 기록을 시간(1899년~현재)순으로 재구성
	관련장소	근대건축물의 옛 위치와 현재 위치의 변화를 지도에 표시하고 기록을 링크하여 제공
	참여(기증)	군산 근대건축기록물 관련 기록 기증(기록 유형 및 기증방법 안내)
소개	* 아카이브 설립목적, 사이트 정책 및 안내, 소장 기록물 현황, 사이트 맵, 공지사항 * 게시판(자주 묻는 질문, 묻고 답하기, 방명록), 교육프로그램, 견학, 행사 안내	

건축도면 관련 우리나라 기술 표준이 제정되지 않아 영구기록물 기술요소와 건축기록 기술요소를 바탕으로 근대건축기록물 기술요소 예시를 작성하였다. 다음 <표 8>과 같다.⁹²⁾

91) 국내·외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필자가 작성

92) 이정용, 2018, 앞의 논문, 56~59쪽

표 8.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기술요소 예시⁹³⁾

기술영역	영구기록물 기술요소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기술요소
식별영역	참조코드	등록문화재 제374호
	제목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일자	1922년 준공
	기술계층	기록물철
	기술단위의 규모와 유형	172면
맥락영역	생산자명	-
	행정연혁/개인이력	1909년: 제일은행 군산출장소를 인수하여 조선은행 군산출장소로 개업 1916년: 조선은행 군산지점으로 승격 1920년: 현 위치에 신축공사 시작, 상량식 거행 1922년: 준공 1953년: 한국상공은행에서 인수하여 한일은행군산지점으로 사용 1981년: 개인이 소유하면서 예식장으로 용도 변경 1982년: 유홍주점으로 용도 변경 및 2층 증축 1990년: 1층 증축 및 화재 후 방치 2008년: 군산시 매입 후 등록문화재로 지정 2014년: 군산근대건축관으로 활용
	기록물 이력	2009년 근대건축물기록화사업 (2008년 4월 27일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집/이관의 직접적 출처	문화재청
내용과 구조 영역	범위, 내용	문헌조사를 통해 연혁을 정리하고 실측이 가능한 부분부터 조사를 실시함. 입면과 배치는 광파기로 측량하였으며 평면 실측은 외벽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지붕층 트러스와 1층부 창호는 수작업으로 실측 조사를 수행함. 기록화 조사는 문헌조사 및 인터뷰, 실측조사 및 도면작성, 사진촬영 등으로 이루어짐.
	평가, 폐기, 처리일정 정보	영구보존대상 기록물
	정리체계	등록문화재/기타/업무시설/
	색인어	군산, 군산근대건축관,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열람과 이용조건 영역	접근환경	모든 이용자 열람가능
	자료의 언어	한국어
	물리적 특성과 기술적 요구조건	-
	검색도구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검색, 단행본은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기록화 조사 보고서』 확인 (http://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

93) 문화재청, 2009, 앞의 보고서, 25쪽을 영구기록물 기술요소와 건축기록 기술요소를 적용하여 재구성

기술영역	영구기록물 기술요소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기술요소
관련자료 영역	건축물명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건축물의 위치	전북 군산시 장미동 23-1, 12번지
	용도	원래용도 : 은행 현재용도 : 군산근대건축관
	건축형식	서양 근대 분리와 양식
	건축구조	조적(벽체), 철근콘크리트(보, 슬래브), 목조트러스(지붕)
	건축외장 마감재	화강석(징두리벽), 자기타일 및 테라조(벽체), 함석판(지붕)
	관련인물 및 단체	설계자 : 안톤펠러 시공자 : 시미즈 구미 관리자 : 군산시
	건축규모	층수 : 지하 1층, 지상 2층 대지면적 : 2,035㎡ 건축면적/연면적 : 856㎡/1,324㎡ 부대시설 : 시멘트 벽돌조 창고 2동
	건축물의 역사적 의미	일본인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토지 강매하는 등 식민지 지배를 위한 수단이었음
주기영역	추가설명	조사보고서 작성 후 수집된 추가정보가 필요, 수집기록물 : 상량문, 폐쇄등기부등본, 신문기사, 사진
기술통제영역	기술담당자	-
	규칙과 협약	국가기록원영구기록물기술규칙(2011), ICA 건축기록에 대한 기록관리 지침(2000)
	기술일자	2019/06/30

(3) 서비스

① 이용자 서비스 및 검색도구

군산 근대건축기록물 아카이브는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문과 게시판, 댓글 기능을 통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를 분석하여 이용자 그룹을 세분화하고 각 그룹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이용자들의 참여를 위해 기증, 전사, 태그 등을 활성화한다. 온라인 기증방식을 활용하며 기증 기록은 근대건축물 관련 콘텐츠와 컬렉션 개발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사(Transcription)기능으로 원본 기록이 훼손되거나 가독성이 낮은 이미지 형태의 기록을 텍스트로 입력하여 기록의 내용을 이해하고 검색을 용이하게 한다. 태그 기능을 통해 기록 관련 키

위드를 기술정보에 추가하여 검색이 용이하도록 한다.⁹⁴⁾

또한 검색도구의 다양화 및 지능화가 요구되는바 이용자가 원하는 기록을 찾아 열람할 수 있도록 통합, 키워드, 상세, 카테고리, 가나다 검색 등을 지원한다. 하이퍼링크, 디지털 원문에 대한 원격서비스를 포함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하여 영상, 음성 등 지능형 검색도구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⁹⁵⁾

② 콘텐츠 개발 및 전시

군산 근대건축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는 공주학아카이브 컬렉션과 다양한 전시콘텐츠, PNU 로컬리티 아카이브 콘텐츠와 지역별로 구성된 기록컬렉션을 참고한다. 그리고 이용자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교육·전시·홍보·체험·연구용 기록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언어로 지원한다.

특히 근대건축기록물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사실을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여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한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스토리텔링을 통해 전쟁으로 상처받은 이들의 기억 재생과 조정을 통해 상처를 극복하고 한편으로 역사적인 교훈을 줄 수 있다. 군산 근대건축기록물의 경우 쌀 수탈 역사와 근대건축물, 일제강점기 군산이야기, 일제강점기 문화유산, 근대 일상의 기억 등을 스토리텔링하여 학생, 교사, 일반 이용자, 연구자들에게 제공한다. 근대건축물은 공간 자체가 아카이브인 동시에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다. 근대의 역사가 유지된 공간은 시대적 공감과 반성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현장을 직접 보면서 느끼는 시각적 공감은 텍스트를 통한 인식적 공감보다 구체적이며 오래 지속될 수 있다.⁹⁶⁾

수집된 도면, 사진, 구술기록 등 기록물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시각적 표현기술을 활용하여 전시한다. 특히 오래된 문서를 스캔한 경우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해설을 함께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에 이용자들이 참여하고 콘텐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군산근대건축관과 유튜브,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매체와 연계하고 모바일 앱으로 제공한다.

94) 현문수 외, 2014, 앞의 논문, 42-43쪽

95) 노명환 외, 2017, 『아카이브 콘텐츠 아카이빙』, HUINE, 159쪽

96) 노명환 외, 2017, 앞의 책, 98·102쪽

③ 커뮤니케이션

군산 근대건축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홍보와 협력을 강화한다. 첫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문화관련기관 등 홈페이지를 통해 아카이브 활동에 대한 정보와 콘텐츠, 링크를 제공한다. 그리고 소식지, 홍보메일을 이용하여 아카이브의 소식과 링크를 제공한다. 또한 검색 포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연관 사이트 등 디지털 채널을 통해 콘텐츠를 공유하여 이용자를 확보한다. 특히 군산시 웹페이지를 중심으로 각종 이벤트, 문화행사, 견학 및 체험 등을 연계하여 근대건축기록물을 알리고 사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한다.

둘째, 다양한 커뮤니티를 구축한다. 근대건축기록물은 지역의 역사를 담고 있어 보존 및 활용, 홍보 등 다양한 유형의 커뮤니티 구축한 홍보가 중요하다. 일반 시민들도 커뮤니티 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근대건축기록물은 여러 기관, 조직,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학계를 비롯한 민간 영역에서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군산 근대건축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기록을 수집하고 수집 기록의 콘텐츠제작, 전시, 학술 연구 등의 원천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브시스템을 구축한다. 즉 전국에 산재해 있는 근대역사박물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 및 조직 그리고 개인 간의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5. 결론

일본의 잔재로만 여겨졌던 근대건축물은 현재 도시형성과정을 이해하고 나아가 지역 정체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근대건축물을 보존하고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건축기록물에 대한 관심은 대체로 낮은 실정이다. 당 시대의 역사적 배경정보와 건축과정을 담고 있는 기록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기록을 관리 할 수 있는 기록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로 기록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근대건축물이 많이 남아있는 군산지역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가치와 현황을 파악하고 근대건축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군산 근대건축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빙 방안을 연구하였다.

1장에서는 근대건축기록물 아카이빙 방안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군산의 역사적 측면과 근대건축기록물의 기록학적 측면, 건축학적 측면으로 나누어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건축기록물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지만 보존과 활용의 측면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또한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기록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시스템이나 법 제도상의 규정이 미흡하였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 진행되지 않은 공공·민간영역을 모두 포함한 근대건축기록물 아카이빙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근대건축물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군산지역을 선정하여 효과적인 기록 활용을 위한 아카이빙 방향을 정하였다.

2장에서는 군산지역의 개항과 도시계획에 따른 건축물이 설립되는 과정을 통해 나타난 근대건축기록물의 가치와 현황을 형성의 의미, 현황과 특징, 종류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군산은 1899년에 개항하고 근대도시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건축물이 설립되었다. 1899~1909년(개항기)에 조계지가 설정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 옥구감리서 등 공공업무시설과 상업시설, 학교, 병원 등이 지어졌다. 1910~1929년(도시기반시설 확립기)에는 식민지배에 필요한 각종 공공시설, 농장시설, 종교시설, 도로와 철도, 미곡 저장 및 유통시설 등이 건립되었다. 1930~1945년(도시 확장기)에는 병참기지화되어 공업시설이 많이 건축되었다. 이 건축물들은 원활한 수탈과 식민지 통치를 목적으로 근대건축물과 시설을 건립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리고 서양식 건축양식과 기법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건축물은 문화재 23건과 건축자산 175건(441동)이 관리되고 있다.

둘째, 근대건축기록물은 대한제국 영신도감과 탁지부 건축소를 거쳐 한일합방 이후에는 총무부 회계국 영선과, 탁지부 세관 공사와 등 각 지방통치기구에 건축 관련 문서를 관리하였다. 국가기록원은 조선총독부 일부 기록을 조선총독부기록물과 일제시기 건축도면 아카이브 기록정보콘텐츠를 제작하여 웹사이트에 제공하고 있다. 기록의 맥락정보와 이미지, 해제문 등을 주제·시설유형별로 확인할 수 있지만 기술요소 표준이나 기록물의 특징을 반영하지 않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은 등록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중에 수집·생산된 일반문서, 회의록, 도면, 문헌자료 사본 및 시청각 기록물을 관리하며 웹사이트를 통해 회의록, 보고서, 간행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동국사 대웅전, 군산 신흥동 일본식가옥, 구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기록화 조사보고서가 발행되어 수집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국가문화유산포털을 통해 건축물 유형으로 분류하여 사진, 수량 및 면적, 지정(등록)일, 소재지, 시대, 소유자, 관리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록에 대한 맥락정보, 분류체계, 기술요소가 미흡하였다. 군산시는 문화재 보존 및 관리, 활용과 도시재생 관련 업무 중 수집·생산된 기록물을 보존·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집된 사진, 건축물 모형, 근대기 건축도구, 영상 등은 군산근대건축관에 전시하며 별도의 웹사이트는 구축되지 않았다. 근대건축기록물 관련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웹 페이지는 간단한 건축물 정보를 제공하며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었다. 디지털군산문화대전은 총체적인 정보제공에 의미가 있으나 기록물 연계가 부족했고 정보검색이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분류체계나 기술요소가 정리되지 않아 별도의 체계가 필요하였다. 이에 건축물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수집방안과 건축물의 연혁과 특징 등 추가적인 기록 수집이 필요하다. 분야 및 용도에 따른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체계와 함께 인물, 사건, 가치 등을 반영하고, 영구기록물 표준이 있음에도 반영되지 않아 영구기록물 기술요소와 건축기록물의 특징을 반영한 기술요소가 필요하다.

셋째, 근대건축기록물유형은 건축물을 설계한 인물이나 기관, 건축공사의 행정절차와 공정단계 등을 담고 있는 일반 문서와 건축재료, 구조, 기술, 양식이 담긴 도면 그리고 당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필름류, 건축물 위치를 표시한 지도로 구분하여 특징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군산 근대건축기록물의 디지털 아카이빙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을 기반으로 구축된 국내·외 아카이브를 선정하여 디지털 아카이빙 현황을 분석하였다. 공주학아카이브는 지역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컬렉션과 전시콘텐츠에 중점을 두었다. 컬렉션은 시대, 출처, 주제, 형태로 구성하였고 45개의 주요 키워드를 개발하여 검색도구와 전시콘텐츠를 제공한다. PNU 로컬리티 아카이브는 주제·시간·공간별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부산, 공간의 기억 아카이브는 각 지역별로 기록컬렉션을 구성하여 사진 아카이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인천학 아카이브는 장소를 중심으로 텍스트와 이미지 기록을 지리정보 위에 중첩하였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박물관은 역사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상하이시 당안관은 당안(기록)을 보존하여 지역정보 제공, 전시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용자 서비스 측면은 다소 부족했다.

4장에서는 군산 근대건축기록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근대건축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빙 방안을 구축과 프로세스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방안으로 기록화 범주, 구축방식, 개발도구를 정

리하였다. 기록화의 범주는 지역 내 근대건축물 및 그 주변의 장소가 중심이며 근대건축물 및 그 주변 장소의 경험과 집단기억이 많이 축적된 곳, 근대 시기 급격한 공간변화가 이루어진 곳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장소 경험과 관련된 의미 있는 인물과 공동체를 선정한다. 구축방식은 다양한 공동체가 기억의 기록과 활동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을 제공 할 수 있는 참여형 아카이브이다. 수집 주체는 이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수집기관-공동체-이용자 주도형이며 이용자의 참여도가 높은 적극적 참여방식을 따른다. 개발도구는 도서관, 박물관, 아카이브, 교육기관, 연구자를 위한 표준 기반의 콘텐츠 관리시스템인 소프트웨어 ‘오메카(Omeka)’ 를 적용한다. 따라서 근대건축물에 대한 기억이나 기록 생산 의도가 주체별로 상이 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고 이들의 기억 모두를 기록화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둘째,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프로세스는 수집, 분류 및 기술, 서비스로 나누어 실질적인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군산 근대건축기록물 아카이브의 사명과 목적, 군산근대건축기록물 수집의 구체적인 고려사항 등을 명시한 수집정책을 마련하고자 사명문과 기증서 예시를 작성하였다. 분류 및 기술 방안에서 국내·외 디지털 아카이빙 방안 분석과 근대건축물 특성을 반영하여 메인화면, 기록, 기록 컬렉션, 전시콘텐츠, 갤러리, 태그, 타임라인, 관련장소, 참여(기증), 소개로 구분하고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영구기록물의 기술 영역과 건축기록물기술요소를 비교하여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기술요소를 제시하였다. 서비스 방안은 이용자 서비스 및 검색도구, 콘텐츠 개발 및 전시,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용자 서비스 및 검색도구는 이용자층에 대한 분석, 검색 도구의 다양화를 제안하였다. 콘텐츠개발 및 전시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 시각적 표현기술을 이용한 전시방식을 제안하였다. 커뮤니케이션은 디지털 아카이브 홍보와 협력을 위해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 및 검색 포털, 연관 사이트 등의 디지털 채널 활용한 콘텐츠와 링크 연계, 다양한 공동체와 커뮤니티 구축,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근대건축물 기반 협업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민들의 기록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고자 지역행사, 전시, 체험 등을 연계하여 기록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군산지역 근대건축기록물을 대상으로 아카이빙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수집, 분류 및 기술, 서비스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록원, 문화재청, 군산시 기록에 한정하여 현황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기록물 전반에 대한 특징을 반영하였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기록물의 인식과 그에 따른 근대 시기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다양한 연구와 이용 활성화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지역의 수집기관과 공동체, 그리고 이용자가 협력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기록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논문접수일: 2020. 11. 09. / 심사개시일: 2020. 11. 18. / 게재확정일: 2020. 11. 25.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중규, 2001, 『군산역사이야기』, 도서출판 나인.
- 노명환, 조민지, 김명훈, 김덕목, 이정연, 배은경, 김태현, 최정은, 문정현, 한상진, 김택헌, 송주형, 양성호, 방재현, 홍원기, 최동운, 원종관, 2017, 『아카이브 콘텐츠 아카이빙』, HUINE.
- 한국기록관리학회, 2010,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 아세아문화사.

2. 연구논문

- 강수나, 김익한, 2009, 「건축문화재 기록의 특성과 관리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19호, 3-55쪽.
- 김영정, 1995, 「일제시대의 도시성장: 군산시 사례」,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2집, 137-150쪽.
- 김태웅, 2003, 「일제강점기 건축기록물의 생산과 보존」, 『건축』 47권 8호, 23-26쪽.
- 문예은, 2011, 「근대문화유산을 둘러싼 담론의 경쟁 양상 분석: 군산시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4권 2호, 265-304쪽.
- 박찬승, 2003, 「기록물관리법과 건축기록물 보존」, 『건축』 47권 8호, 20-22쪽.
- 설문원, 2011, 「디지털 환경에서의 로컬리티 기록화 방법론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권 1호, 207-230쪽.
- 송석기, 2004, 「근대도시 군산의 일제시기 건축유산 현황과 건축적 특성」, 『역사문화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28-148쪽.
- 신동희, 김유승, 2016,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권 3호, 1-30쪽.
- 윤정숙, 1985, 「개항장과 근대도시 형성에 관한 역사지리적 연구: 군산항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20권 2호, 74-99쪽.
- 이우중, 2003, 「건축 아카이브의 기능과 운영」, 『건축』 47권 8호, 14-17쪽.
- 이우중, 우동선, 전봉희, 2001, 「일제시기 건축 도면의 보존 현황-정부기록보존소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구조계』 21권 1호, 317-320쪽.

- 이혼아, 2007, 「KS X ISO 15489를 통해본 건설기록물 관리 현황」, 『한국기록관리학회지』 7권 2호, 113-138쪽.
- 임창복, 2003, 「건축박물관의 건립을 제안하며」, 『건축』 47권 8호, 10-13쪽.
- 전봉희, 2005, 「건축 아카이브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연구-정부기록보존소 소장 일제시기 자료를 대상으로-」, 『기초과학연구사업 학술기사』.
- 지찬호, 2003, 「건축 기록물의 보존과 활용」, 『건축』 47권 8호, 27-29쪽.
- 현문수, 전보배, 이동현, 2014,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실행 방안: 부산 영도 지역 조선(造船) 노동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기록학연구』 42호, 245-285쪽.

3. 학위논문

- 강수나, 2007, 「건축문화재 보존관리 기록의 아카이빙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김미연, 2004, 「도시철도 도면 관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나진희, 2013,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로컬리티 기록화 전략의 적용: 중국 상해(上海)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박진경, 2017, 「사회적 기억을 위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안대진, 2019, 「기록시스템의 오픈소스 전략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이상준, 2004, 「기록물관리기관의 건축기록물관리에 관한 연구-서울시 중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이은비, 2016, 「대구 근대기록물의 온라인 전시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이장묵, 2009, 「건축기록물의 활용을 위한 콘텐츠 구성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 이정용, 2018, 「기록학적 관점에서 본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장윤미, 2010, 「건축도면 아카이브스 기술요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조상훈, 2010, 「건축기록물의 아카이빙 사례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 주소영, 2010, 「대구 관련 근대기록물 소장현황 및 활용」,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학교.

주현우, 2012, 「디지털 건축 아카이빙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최선영, 2016, 「미국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문화재청 근대건축물 기록화와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최정은, 2010, 「지방 역사기록물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방안: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4. 인터넷 사이트

PNU 로컬리티 아카이브, <http://localityarchives.org> (검색일: 2019.06.30.)

공주학아카이브, <http://kjha.kongju.ac.kr/archive> (검색일: 2019.06.30.)

국가기록원 일제시기 건축도면 아카이브, <http://theme.archives.go.kr/next/plan/viewMain.do> (검색일: 2019.06.30.)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검색일: 2019.06.30.)

국가기록원조선총독부기록물, <http://theme.archives.go.kr/next/government/viewMain.do> (검색일: 2019.06.30.)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 (검색일: 2019.06.30.)

군산근대역사박물관, <http://museum.gunsan.go.kr/index.do> (검색일: 2019.06.30.)

군산시 문화관광, <http://www.gunsan.go.kr/tour> (검색일: 2019.06.30.)

군산시, <http://www.gunsan.go.kr> (검색일: 2019.06.30.)

디지털군산문화대전, <http://gunsan.grandculture.net> (검색일: 2019.06.30.)

문화재청, <http://www.cha.go.kr> (검색일: 2019.06.30.)

부산, 공간의 기억, <http://bpa.localityarchives.org> (검색일: 2019.06.30.)

상하이시 당안관, <http://www.archives.sh.cn> (검색일: 2019.06.30.)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박물관, <http://auschwitz.org/en> (검색일: 2019.06.30.)

인천학 디지털 아카이브, <http://www.isi.or.kr/study/archive/index.php> (검색일: 2019.06.30.)

한국중앙연구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검색일: 2019.06.30.)

5. 기타자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13호, 2017. 3. 21., 일부개정]
-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8. 7. 13.] [법률 제15639호, 2018. 6. 12., 일부개정]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2. 10.] [법률 제14869호, 2017. 8. 9., 일부개정]
- 국가기록원, 2008,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 I』.
- 국가기록원, 2010,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 IV』.
- 군산시, 2017, 『군산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계획(안)』.
- 문화재청, 2005, 『군산 동국사 대웅전 기록화 조사 보고서』.
- 문화재청, 2007, 『군산 신흥동 구 히로쓰가옥 기록화 조사 보고서』.
- 문화재청, 2008, 『구 나가사키18은행 군산지점 기록화 조사 보고서』.
- 문화재청, 2009,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기록화 조사 보고서』.
-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 역사와 현재, http://auschwitz.org/gfx/auschwitz/userfiles/auschwitz/historia_terazniejszosc/auschwitz_historia_i_terazniejszosc_wer_koreanska_2010.pdf
- 전라북도, 2004,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및 조사보고서』.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11, 『영구기록물 기술규칙 NAK 13:2011(v2.0)』.

<Abstract>

Records on Modern Architectures in Gunsan

- Current Status and the Suggestions for Digital Archiving.

Minkyong Kim*

Gunsan had been developed for exploiting rice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there remain more modern architecture there than other regions. Therefore, the city have made an effort to conserve and utilize these modern cultural heritages.

The records on modern architecture has been being created until now since the era of the Korean Empire and Japanese Colonial Times, and their origins and forms are very diverse. These records are currently managed by individuals, groups or institutions. However, in order to raise recognition on the record, and to manage and utilize them systematically, it is necessary to prepare integrated management methods. Accordingly, this study makes suggestions about digital archiving of the records on modern architectures for raising recognition on them, integrating record management, and utilizing them effectively. The summary are as follows:

First, the category of documentation focus on modern architectures in the region and the places around them. The reason is that these places are considerably accumulated with experiences and collective memories about modern architectures and their surroundings.

Second, For the method for building an archive, participatory archive available for offering digital technologies to share records and activities of their memories through participations of various communities.

Third, for developing instrument, Omeka, an open source software is selected for interpreting the records in a variety of ways and using its exhibition function.

Fourth, in the process of building a digital archive, collecting, classification, and description, and service are divided into for suggesting practical methods to build it.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for digital archiving on the records of modern

* Department of Archival Science Graduate School Wonkwang University

architecture in Gunsan area, and limits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the records from National Archives of Korea,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Gunsan City, having limitations for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the entire records. However, through recognition on the records, it is available to establish a right historical view and to utilize them for various researches and sources. Based on them, it is expected that local institutions and communities for collecting sources, and users will establish governance and the culture of recording will be settled.

Key Words : Records of Modern Architecture in Gunsan area, Records on Modern Architectures, Digital Archiving, Service, Omeka.

